



배우 최우식 /매지먼트 스텝 제공

“캐릭터 돋보인 공감 로맨스”

‘그 해 우리는’ 최우식 첫 멜로 연기 만족 “배우로서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 들어”

재희한 전 여자친구를 애써 태연하게 대하려는데,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숨겨지지 않고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 드러나 버린다.

SBS 월화드라마 ‘그 해 우리는’에서 순수하고 섬세한 느낌의 남자 주인공 최우식은 배우 최우식(32)을 쏙 빼닮았다.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한데 차분한 말투에는 진중함이 꼭꼭 묻어있다.

25일 종영된 ‘그 해 우리는’의 최우식은 “작가님이 제가 출연한 예능 ‘여름방학’을 보고 (대본을) 쓰셨다고 했는데, 생활 패턴이나 성격이 저랑 많이 닮긴 했다”며 “싱크로율은 60~70% 정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해 우리는”은 고등학생 때부터 오랜 연애를 하다 헤어진 최우(최우식 분) 과 국영수(김다미)가 재회하면서 설렘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감정을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로맨스는 처음이라는 최우식은 “큰 부담감을 품고 시작한 작품”이라며 “멜로라고 했을 때 배우 최우식이 바로 떠오르는 않아서 (로맨스 작품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푹푹한 청춘 남녀가 주인공이다 보니 키스 신은 물론 간질간질한 애정행각 장면이 많았다. 최우식은 로맨스 연기가 쏙스럽기는 했지만, 캐릭터에 입입된 뒤에는 연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역인 김다미) 정말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편하게 했지만, 스킨십이나 감정 표현을 할 때는 부끄럽기도 했다”며 “다행히 캐릭터에 빨리 빠져들었고, 다미가 차차 연수로 보였다”고 말했다.

캐릭터에 입입한 건 최우식뿐만이 아니다. 시청자들 역시 웅이와 연수의 출렁이는 연애 전선에 따라 울고 웃었다.

최우식은 드라마가 큰 공감을 얻은 이유에 대해 “사랑이 시작되고, 이별하는 그런 모습을 다들 많이 겪다 보니 (드라마가 시청자들) 마음에 좀 더 와닿았다고 생각한다”며 “배우보다는 캐릭터가 돋보이는 작품이어서 보는 이들이 좀 더 감정 이입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가 잘되면 출연 배우나 감독이 주목받는데, 드라마가 잘되면 캐릭터가 더 주목받는 것 같다”며 “영화 속 캐릭터 이름보다 드라마 캐릭터 이름을 기억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만큼 몰입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으로 최우식의 매력에 빠져든 팬들도 많아졌다. 드라마 방영 전 250만 명 수준이던 소셜서비스(SNS) 팔로워는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는 이런 관심이 고맙고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연기를 못해서 욕을 먹으면 독을 품고 더 열심히 좋은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칭찬을 받으면 다음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부담감을 완벽하게 줄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노하우를 찾는 중이에요.”

2011년 드라마 ‘짝패’로 데뷔한 최우식은 벌써 연기 11년 차 배우다. 영화 ‘부산행’ (2016)으로 천만 관객 배우로 입지를 다졌고,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 (2019)에 출연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여태까지 해온 연기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나 성인 초반일 때 겪은 감정을 투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할 연기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쌓아온 것을 갈고 닦아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는 “좋은 작품을 만나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며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배우로서 열정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규현, 미니 4집 ‘러브 스토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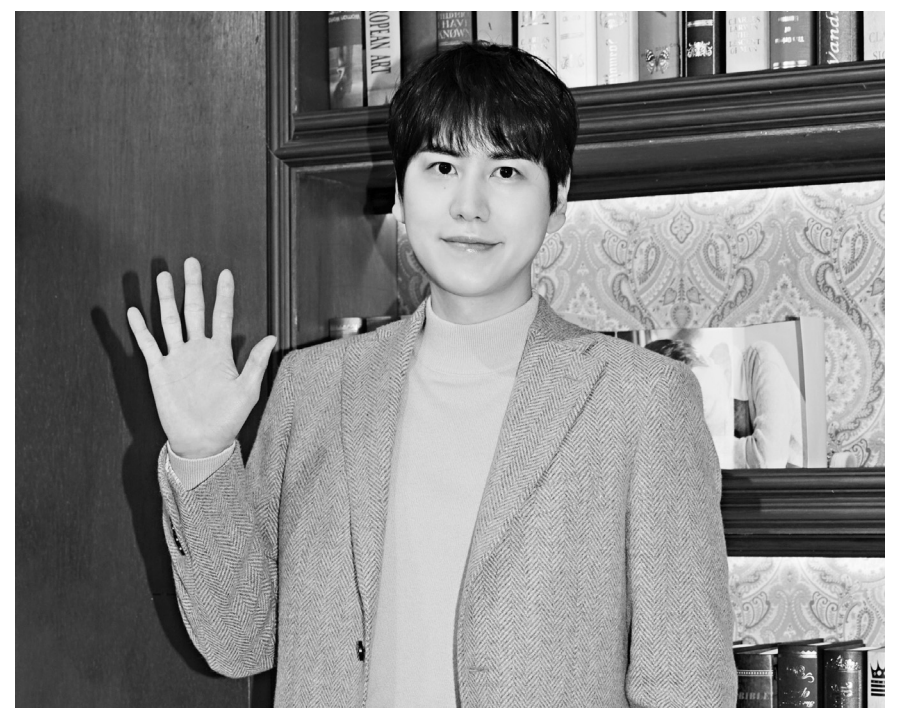
“마음 아리는 감성 좋아”

“저는 후렴보다는 도입부에서 공을 들여서 간드러지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아리게 하는 감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밀리언조각’ 등으로 가요계 대표 발라더로 자리 잡은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네 번째 미니앨범 ‘러브 스토리’(Love Story)를 내놨다.

규현은 지난 25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요즘에는 시적인 느낌의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예전만큼 많지 않다”며 “예전의 향수를 오랜만에 겨울에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브 스토리’는 지난 2020년 시작된 규현의 사계절 프로젝트 ‘프로젝트 : 계절’(PROJECT : 季)를 마무리하는 앨범이다.



규현 /레이블SJ 제공

규현은 지금까지 계절에 맞춰서 ‘드림’(Dreaming·여름), ‘내 마음을 누르는 일’(가을), ‘마지막 날에’(겨울), ‘커피’(봄), ‘투게더’(여름) 등의 노래를 내며 음악적 역량을 쌓아왔다.

이번 미니앨범에는 타이틀곡 ‘연애소설’을 비롯해 사계절 프로젝트 선보인 노래들까지 총 6곡이 담겼다.

‘연애소설’은 SM엔터테인먼트의 솔한 히트곡을 만든 유영 프로듀서 켄지가 작사, 작곡한 노래다.

규현은 “이별을 한 후에 예전에 읽었던 오래된 연애소설을 다시 읽어보면서 과거와는 다른 감정을 내뿜는 노래”라며 “사실 이 노래는 가을에 나왔고, 겨울곡을 한 곡

더 만들 생각도 있었지만 이 곡을 듣다 보니 이 노래로 마침표를 찍어도 될 만한 노래라고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배우 공명과 채수빈이 출연해 권태기의 연인 관계를 풀어냈다.

규현은 “사계절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름에는 산뜻한 노래를 내고 싶고, 가을과 겨울에는 발라드를 하고 싶고, 봄에는 ‘살랑살랑’한 노래를 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곡들이 6곡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노래가 쌓여서 실물 앨범을 만들어서 보니 뿌듯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의 시간이 그러저기도 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서 “이 곡들을 모아 나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공연에서 이 노래를 (팬들과) 같이 부르면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인기 K팝 아이돌 그룹 멤버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발라더로 자리 잡은 규현의 감성의 원천을 물어보니 ‘발라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리 발라드를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했다. ‘자타공인 발라드 마니아’인 셈이다.

“거짓말이 아니라 일 년 중 364일은 발라드만 들어요. 발라드가 지겹지 않아요. 하지만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발라드 말고 캐럴을 듣습니다. 하하” /연합뉴스

김태호 PD, 예능 ‘서울체크인’ 첫선

29일 티빙서 공개...이효리의 서울 나들이 관찰

MBC를 퇴사한 김태호 PD가 ‘제주덕’ 이효리의 서울 나들이를 다룬 파일럿 예능 ‘서울체크인’을 선보인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은 김 PD가 연출한 단일 예능 콘텐츠인 ‘서울체크인’을 오는 29일 정오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PD가 지난 17일 MBC를 퇴사한 이후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제주살이 9년 차인 이효리가 서울에서 스케줄을

마친 뒤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는지 등 서울 라이프를 다룬 리얼리티 콘텐츠다.

MBC 예능 ‘놀면 뭐하니?’의 썩스리·환불원정대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에 올라온 이효리가 ‘서울에 온 김에 누구를 만나고 갈까’, ‘성수동이 합하다는데 가볼까’ 등의 생각을 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기획됐다.

‘서울체크인’은 서울이 낯설어진 이효리의 속마음과 고민, 그가 만나는 사람들



‘서울 체크인’ /티빙 제공

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넨다. /연합뉴스

드라마 몰입도 높이는 OST 잇따라 공개

드라마 주요 장면에 삽입돼 몰입도를 높여주는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가수 케이윌이 참여한 tvN 월화드라마 ‘고스트 닥터’ OST ‘내겐 전부인 마음인걸요’가 이날 정오 각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됐다.

바람이 흘러가는 듯 가볍게 표현한 도입부의 피아노 선율이 인상적이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절정에 이른 순간을 ‘한낮 꿈이라 해도 멈추지 않아요’라는 가사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신의 전부가 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를 향한 절절한 감성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싱어송라이터 찬슬러는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너와 나의 경찰수업’ OST 첫 주자로 나선다. 찬슬러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OST ‘비커즈 오브 유’(Because of You)는 이날 오후 발매된다.

뮤직앤유 관계자는 “찬슬러는 독보적인 감성과 프로듀싱 능력을 보여줬다. 이번 곡에서는 감미롭고 트렌디한 음악으로 드라마의 몰입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곡 뮤직비디오는 이날 뮤직앤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FNC, ‘신예 발굴’ 전국 투어 오디션 개최

씨엘블루와 SF9 등이 소속된 FNC엔터테인먼트는 신예 발굴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FNC 씨티 투어 오디션’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오디션은 다음 달 3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22개 도시를 돌며 23일간 진행된다.

2003~2011년생 청소년이라면 국적이거나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보컬, 랩, 댄스, 연기, 비주얼 등 5개이다. 개인 혹은 단체로 지원할 수 있지만, 단체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합격자 선정은 개별로 이뤄진다.

FNC엔터테인먼트는 “기존 공개 오디션과 달리 전국 중소 도시까지 직접 찾아가 현지 아카데미와 협업하는 도시 투어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p>子</p> <p>48년생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60년생 지나친 걱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2년생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84년생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 된다.</p>	<p>丑</p> <p>49년생 첫인상에 속지 말라. 61년생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조각배 신세다. 73년생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다. 85년생 사랑한다면 끝까지 믿어주자.</p>	<p>寅</p> <p>50년생 오랜 친구를 만나서 회포를 풀다. 62년생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한다. 74년생 멋진 이상의 유혹을 경계하라. 86년생 선남선녀가 만나는 날이다.</p>	<p>卯</p> <p>51년생 이웃과 다툼을 조심하라. 63년생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길하다. 75년생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87년생 정정당당하게 정명승부를 걸어라.</p>
<p>辰</p> <p>52년생 선심을 쓰고도 싶은 소리를 듣는다. 64년생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76년생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야 한다. 88년생 적극적으로 내 주장을 펼쳐라.</p>	<p>巳</p> <p>41년생 건강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53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65년생 군대나 사회나 줄을 잘 서야 한다. 77년생 매사에 양보하고 타협안이 이롭다.</p>	<p>午</p> <p>42년생 과거는 잊고 이제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 54년생 투자를 삼가고 관망하라. 66년생 본수에 넘치는 일은 삼가라. 78년생 능력을 발휘하고 뜻을 펼친다.</p>	<p>未</p> <p>43년생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55년생 역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67년생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79년생 운세가 불길하니 매사에 조심하라.</p>
<p>申</p> <p>44년생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56년생 과음 과식을 삼가고 건강에 유의하라. 68년생 유흥기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 80년생 기대보다 결과가 더 좋다.</p>	<p>酉</p> <p>45년생 지나친 집착은 원망을 부른다. 57년생 사랑한다면 용서하라. 69년생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라. 81년생 승승장구하는 좋은 날이다.</p>	<p>戌</p> <p>46년생 모처럼 집안이 떠들썩하다. 58년생 소도 언덕이 있어야 바쁘다. 70년생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이다. 82년생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p>	<p>亥</p> <p>47년생 가끔은 인생을 즐길 필요가 있다. 59년생 현상유지만 해도 대성공이다. 71년생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라. 83년생 투자하기에 좋은 날이다.</p>